천벌(天罰)

(막1:40~45)

40.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벌(天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벌(天罰)!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마가가 특별히 지금 1장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의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아들 되신 그 신분에서 나오는 능력을 전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병과 같은 그 당시, 천형! 천벌이라고 불리었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문제도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지금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 또 기록한 그 사건을 접하고 있는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마리아코스를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분에게 마음을 드려서 마가의 마음이 천국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에 가있는 상태, 십자가를 통하여 승천까지 이어지는 마리아코스를 지난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의도적으로 1장에 이곳에 지금 적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가의 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에 장악되어서 예수님의 나병환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가 마음속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추적해 들어가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드린 대로 그냥 여느 질병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에 의해서 일어난 병입니다.
그게 천벌이고 천형이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 도대체 하늘이 내린 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추상적인 의미가 가장~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즘은 나병이라 그러는 것이 피부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약이 좋아서 약을 쓰면 다 낫게 되어있죠?
근데 그 당시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심으로서, 천국을 가까이 갖고 오시고, 그 천국을 전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극복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병으로 상징되는 천벌(天罰)! 이 천벌(天罰)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예수님과 엇갈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또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벌(天罰)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을 때에.

자!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의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나병을 고쳤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나병환자가 동네에 가서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걸 다 사방팔방에 전하고 다니면서, 이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활동을 묶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다시금 그 동네 안에 들어가서 드러내놓고 전도활동을 못하게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방향이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일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사역을 하는 그 본래의도에 비추어볼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병환자가 나았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전도사역 복음전파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천벌(天罰)에 대한 이해, 나병환자로 상징되어지는 그 천벌이라고 하는 이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천벌(天罰)이 뭘까요, 여러분.
천벌(天罰)은 말씀 드린 대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큰 벌' 뭐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천벌은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큰 벌.
그런데 이 말의 뜻, 하늘이 내린 큰 벌이라는 이 정의가 천벌(天罰)이라는 자형의 구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잘 안 맞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천벌(天罰)' 할 때 벌(天罰)자, 벌 벌자(字)에요.
벌을 준다 할 때 벌자고, 같은 뜻으로 천형(天刑)! 똑같은 의미입니다.
형(刑)! 형도 벌을 주는 형(刑)이에요, 한자의 뜻이.

그래서 천형(天刑)과 천벌(天罰)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형' 이래 봐요 사형! 사형(死刑)은 죽을 사자(字)를 써서,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 사형입니다.
또 예를 들어, 벌금! 벌금형(罰金刑)!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金)! 돈 금자인데 앞에 벌(罰)자가 붙어요.
그리고 뒤에도 벌금형(罰金刑)! '형(刑)자'도 같은 의미죠? 벌(罰)자) 형(刑)자 다 같은 의미로 이것은 돈을 빼앗는 것을 뜻합니다.
또, 참수형! 하면 벨 참(斬)자에 머리 수(首)를 씁니다.
참수하는 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머리 수(首), 즉 머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체형(體刑) 그러면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에서 편안함을 빼앗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벌자나 형자가 붙으면 그 형자나 벌자와 연합되어진 단어가 뜻하는 거를 빼앗는 것인데, 그렇게 말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천벌(天罰) 하면 왜 하늘이 내린 벌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참수형이 머리를 베임 받아서 머리를 빼앗기는 벌이라 그러면, 천벌(天罰)은 하늘을 빼앗기는 벌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천벌의 개념을 이 세상 안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빼앗기는 벌, 이걸 천벌(天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천형(天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늘의 저주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빼앗겨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하늘의 저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회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정하는 대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조직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벌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천벌이라 그럽니다.
맨~날 사기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눈에서 눈물 뺍니다.
겨우겨우 벌어서 한 1억 모아 놓았는데 사기꾼한테 당했습니다.
아! 이런 상습적 사기꾼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 이때 얘기하는 게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사건건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던 장로님이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뒤에서 살포시 웃음을 지으면서 천벌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 버렸을 때, 그것도 사회나 조직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고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통해 잃어 버렸을 때 천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린 절대로 하늘나라를 가까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엇갈리는 방향이 무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복음의 원수로 행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벌(天罰)은 하늘을 빼앗기는 겁니다.
참수형이 머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천벌(天罰)은 하늘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마가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병환자는 천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벌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을 빼앗겼던 자가, 하늘을 빼앗겼던 자가, 하늘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복음사역의 내용을 이 나병환자의 치유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빼앗긴 것이 천벌(天罰)이에요.
이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잃는 것이 천벌(天罰)이 아니라, 천국을 잃는 게 천벌(天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을 일상화 하며 사는 것이 복음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주도 해녀처럼 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마음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들어간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에덴을 마음속에 실현시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잠수하면서 내려옵니다.
해녀가 전복 따러 바다 밑으로 잠수해 나가듯이, 그러나 하늘만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어떤 것도 호흡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이 내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일상화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이 끝나면 얼른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마음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천국을 일상화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벌(天罰)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뺏긴 자, 그 당시에 나병으로 상징되던 천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늘을 빼앗긴 자, 하늘 없이 사는 자, 하늘을 일상화하지 못하고 사는 자, 천국을 일상화하지 못하고 사는 자,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엑셀톤' 거기로부터 나와서 잠수하여 전복 따듯이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자, 이들이 바로 천벌(天罰)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모르고 일상화하지 못하고 사는 재벌! 천벌(天罰) 받은 재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일상화하지 못하고 사는 대통령! 천벌(天罰) 받은 대통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일상화하지 못하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 천벌(天罰)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세상을 잠수하듯이 나와서 사업하고 장사하지 못하는 장로님! 천벌(天罰) 받으신 장로님이십니다.

천벌(天罰)의 개념을,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을 잃는 것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을 다 관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들을 많이 얻고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아부하는 것이 신앙인줄 아는 것!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에요.

자! 천벌(天罰)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하늘을 빼앗길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늘을 빼앗길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대칭구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음사이에 육체가 있어요.
마음은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느끼고 세상과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천국이 있고 그 천국과 마음사이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자, 대칭구도가 이루어집니까?
마음의 맨 왼편에 세상이 있고 그 가운데 육체가 있고, 마음의 맨 오른편에 천국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세상과 천국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이때,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벌 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을 교통합니다.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감지하고 천국을 존재감을 느끼며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천벌(天罰)이 극복되어진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통하여 천국을 일상화해서 천국 안에 들어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있던 자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잠시 잠수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아닐 경우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은 육체를 통해서 접하는 이 세상 안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떠어떠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천벌 받은 인생이에요.

내 자식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갖는 것 이거 천벌(天罰) 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천벌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뜻으로 출발한 소원을 갖는 것, 소원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천벌(天罰)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환자가 치유 받았다는 사건이 전파되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좇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천벌(天罰) 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천벌(天罰)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좇고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천국이 없는 천벌(天罰) 받음의 상태가 극복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초장에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엇갈림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귀신을 등장시켜요.
귀신과 예수님이 엇갈립니다.
'장군, 멍군'으로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거기서도 엇갈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가시는 엇갈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천벌(天罰)이라고 하는 나병환자를 통해서 상징되어지는 그 이해가,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거 엇갈리는 겁니다, 엇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가운데 외치셨던 그 순간,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버렸다는 얘깁니까? 어디로 버렸다는 얘기에요?
바로, 사람들이 천벌(天罰) 받은 상태로, 천벌(天罰)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을 보낸 겁니다.
그거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사람들이 천벌(天罰) 받은 상태가 뭡니까?
천국을 일상화 할 수 없는 상태가 저주 받은 상태고 천벌(天罰)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지는 걸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걸 무서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서워하신 것은 무엇이냐?
천국이 없는 저주 받은 암흑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토록 무서워 하셨던 거예요, 그토록 무서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 상태가 바로, 천벌(天罰) 받은 상태입니다.
천벌(天罰) 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무서워하셨던 것은, 몸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걸 잃어버리는 걸 무서워하신 것이 아니라, 이토록 무서워하시고 이제 마가의 눈에도 그토록 무섭게 여겨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보좌가 펼쳐져 있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와 내 마음이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이토록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마가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돈, 재벌처럼 많은데, 내가 그래서 '다~ 이루었다' 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천국을 보좌가 펼쳐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일상화 할 수 없을 때,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마가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학 못 들어가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끝까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일상화할 수 없을 때, 그 아이가 일류대학을 나와 일류 일류로만 달리더라도 그것이 바로 저주 받은, 천벌(天罰) 받은 삶이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천벌(天罰)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 사회가 좋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늘이 벌을 내려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이고, 너무너무 끔찍한 천벌(天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끔찍한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저주의 총체인 천벌(天罰)은, 주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십자가의 경로를

따라서 일상화하지 못하고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